

광주 상일여고 미술부, '온라인 작은 전시회' 개최

내달 28일까지 상일여고 유튜브 채널·홈페이지 통해 선보여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학생들 작품 전시하는 '소담제' 행사 진행

상일여고 미술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온라인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10일 상일여고에 따르면 '온라인 작은 전시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수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추진됐다.

상일여고는 개교 이래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소담제' 행사를 진행해 왔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로 인해 대면행사인 '소담제' 대신 상일여고 이성철 교장을 비롯한 학생·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작은 전시회'를 진행기로 했다.

상일여고 미술부 학생 21명과 도움반 학생 4명은 1년 동안 동아리 및 등교수업 시간에 틈틈이 제작한 작품들을 이번 '온라인 작은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디자인, 애니메이션, 핸드페인팅, 도자기공예, 목공예 등 120여 점으로 채워진 작품들은 동영상 및 팸플릿으로 제작됐다. 작품은 상일여고 유튜브 채널(https://

youtu.be/Lyml6f6_Wqc) 및 상일여고 홈페이지 포토갤러리(http://sangil.gen.hs.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상일여고 2학년 문여빈 학생(미술부 디자인 팀 팀장)은 "한 해 동안 같이 고생한 미술부 친구들과 지도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모두가 협력해 이번 '온라인 작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말했다.

상일여고 2학년 김유진 학생(미술부 애니메이션 팀 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수업 장기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지도 선생님 모두가 힘 써준 덕분에 이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작품집에 대한 논의 및 표지 디자인 제작 과정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여수 여양중, '전교생 꿈 발표대회' 개최

예선 통과한 7팀만이 '개성 만점의 꿈' 발표

여수 여양중학교(교장 박종인)는 7일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꿈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주위에 부러움을 샀다.

꿈 발표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춤과 노래 그리고 PPT, UCC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알리며 자아효능감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였지만, 예선을 통과한 7팀만이 개성 만점의 꿈 발표해 아쉬움도 남았다.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는 애니메이터(1학년 안채영), 운동선수의 계약을 책임지는 스포츠에이전트(3학년 김민선), 아모르 파티를 각색하여 물신주의를 비판한 복권이 최고(1학년 심재민), 인터넷 방송 진행을 꿈꾸는 미래의 유튜버(3학년 김나은, 김다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직업군인(1학년 김승민), 인명과 재해를 책임지겠다는 소방관(2학년 김민재), 아이들의 진짜 꿈을 찾아주겠다는 초등교사(2학년 김태산), 2020년 교육활동을 노래로

각색한 여양트위스트(2학년 이도현) 등 각각 각색의 모습으로 꿈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도 창의성이 돋보인 애니메이터, 국민의 생명과 미래 교육을 책임질 소방관과 초등교사, 한해의 교육활동을 현장감 있게 여준 여양트위스트의 수준 높은 꿈 발표회는 심사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감짝 놀라게 했다.

1학년 김승민 학생은 "이번에 꿈 발표 대회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꿈 조각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 친구들이 진심 어린 박수와 격려를 해주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박종인 교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촘촘하게 살피면서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자신의 꿈을 옹기 있게 발표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전남교육청,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개소식 개최

월선리 예술인마을과 함께 하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 효과 기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예술인 마을에 '전남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를 구축하고 7일 오후 현지에서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나광국 전남도 의원, 김만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월선리 예술인 마을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센터 구축 경과보고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교육감 인사말, 도의원 축사, 시설 라운딩,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

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마을과 연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는 기숙형 대안 위탁 교육기관으로, 학교 부적응, 가정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고 여학생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 치유·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학교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소 정원은 15명, 교육 기간은 3개월이며, 사례 회의를 통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센터가 월선리 예술인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과 함께 하는 자연 친화적 체험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최근 가정 문제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마을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주제로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는 겨울방학 중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호상담교육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목포여중, 비대면 언택트 축제 운영

목포여자중학교(교장 오병희) 최근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비대면 언택트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는 1부 e-sports대회(카트라이더, 끝말잇기), 2부 목여중은 라디오 시대, 3부 목여중 시네마와 시화전 전시 및 관람으로 운영했다.

학생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e-sports대회의 스피드전(개인전)은 총 3판으로 1판당 반별 대표선수 1명이 참가하여 경기 등수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를 매겨 3판이 모두 끝나면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반인 1학년 2반이 우승하였고, 아이템전(팀전)은 2학년 1반의 우승으로 끝났다.

목여중은 라디오 시대는 2020학년도를 마무리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추억을 다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축제 1주일전 미리 사연을 신청 받아 선정된 사연을 방송을 송출하고 사연에 소개된 학생들에게는 베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등 다양한 기프티콘을 발송했다.

목포여자중학교 나해성 사서교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행사들을 언택트 방식의 새로운 형태로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간들을 발판삼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온라인시대와 언택트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목포여자중학교 학생회 3학년 학생은 "코로나



나 심해 축제를 못하면 어쩌지 슬펐는데 비대면 언택트라도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그 하루가 짧지만 행복했다. 특히 정성스럽게 쓴 사연이 목여라(목여중은 라디오시대)에 소개되어 기쁘고 2020년에 좋은 추억 하나가 더 생겨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